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필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현정.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은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지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골아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서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할머니와 하룻밤 情 '새록새록'

한솔복지관 청소년 44명 독거어르신 홈스테이

"내가 학생들 때문에 오늘 호강하네. 어찌나 어깨를 잘 주물러주는지, 원..."

8월 2일 분당의 한 영구입대아파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애(85)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어본다며 주름살을 폈다. 손자 같은 아이들과 말벗도 하고 '어른대집'도 받게 되니 너무나 좋으시란다.

할머니를 찾는 아이들은 8월 2-3일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에서 마련한 '정이 있는 집, 한솔 홈스테이' 행사에 참가한 지역청소년들이다. 이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44명이 독거어르신 열여덟 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한솔복지관이 위치한 노사마을 일부 지역이 영구입대아파트 단지, 그 중 상당수가 독거어르신 거주 세대라는 점에 착안해 의료로 어른들에게 학생들의 방문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분당고 1학년 문세나·유하나 학생은 이회계(74 할머니)와 짝이 돼 할머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초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는 학생들을 보자 손을 부여잡으며 '우리 손녀들'이라고 반긴다.

"얘기들이 집에 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기쁘다." 학생들은 집안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어른들도 마냥 편하지 않은 것. 아이들이 좁은 집에서 새우잠을 자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학생들에게는 뒤통수 해주고 싶은데 줄 것도 마땅치 않다.

정소를 끝낸 후 세나와 하나는 이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수박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서른 아홉에 혼자 목이 뻐다던 것, 아들



"우리집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한솔복지관이 8월 2-3일 진행한 '독거어르신 홈스테이'는 독거어르신과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을 가깝게 만들었다.

은 지난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애정만큼 할머니가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해 독거어르신의 집은 좁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낯선 어른들과 함께 잠을 자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어른들도 마냥 편하지 않은 것. 아이들이 좁은 집에서 새우잠을 자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학생들에게는 뒤통수 해주고 싶은데 줄 것도 마땅치 않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학생들은 어른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 때문에 반짝 눈을 뜬다. 그러나 학생들보다 먼저 일어나 어른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한

경우가 태반이다. 세나는 할머니에게 쇠고기 국을 끓여드리려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미 조기국을 끓였다. 세나는 못내 서운한지 "다음에 와서 해야겠다"고 중얼거린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경(16)이는 "내가 찾아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할머니 마음 속 외로움이 느껴져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소감을 밝혔다.

홈스테이를 준비한 한솔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은 "조부모세대와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서로에게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보강해 1·3세대 통합에 부모세대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병률이 높다. 소화기센터 김진환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임상환자 모집은 노르웨이의 Helse Forde사의 의뢰로 직장탈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한 가장 안전한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16명의 환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환 교수는 국내 북경직 대장수술분

야의 권위자로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을 사용해 직장암까지 깨끗이 제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600여건의 수술성공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임상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일산 불교병원 소화기센터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031) 961-7730 drkimsh@duh.org

조용수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맛있게 드세요." 칠보사 자비회는 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자랑한다. 사진은 7월 30일 원각사 무료급식 봉사 모습.

칠보사 자비회 보살들

비빔밥 한 그릇에 자비 넘치네

이른 아침부터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종로 탑골공원. 7월 30일 서울 칠보사 '자비회(회장 송영란)'가 사찰 무료급식소 원각사(주지 보리)를 찾았다. 한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보살들은 무엇인가 즐거운 얼굴이다.

봉사자들이 우선 하는 일은 밥당 청소다.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는 보살들에게 '마음 닦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밥당을 닦으면 바닥이 깨끗해지지만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예요."

보살들이 여기저기 깨끗하게 쓸고 닦았지만 원각사의 10년 넘게 사용된 냉장고며 가스렌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봉사자들이 하루 1500인분의 밥을 부지런히 해낸 훈장이나 다름없다.

원각사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늘 비빔밥이다.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 같은 비빔밥인데도 칠보

사 보살들이 봉사를 나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보살들은 "우리가 음식솜씨가 좋은가보다"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나눔을 무쳐낸다.

어느 정도 음식준비가 끝난 시간부터는 법회가 진행된다. 봉사하며 사찰에 와서 신심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시간이다.

보살들은 스님의 법문도 좋아하지만 그 보다 스님이 직접 계단청소를 하고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을 맞는 모습이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스님께서 직접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얼마나 마음공부가 되는지 몰라요. 봉사활동 하러 나와서도 배우는 게 많아 오히려 감사합니다." 칠보사 '자비회'는 원각사 창건 당시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오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각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너무 기쁘지요." 김강진 기자

쌀·부식 많이 보내 주세요

95년 개원해 탑골공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원각사에는 무엇보다도 쌀, 부식 등의 식재료가 가장 필요하다. 칠보사 보살들은 "스님 혼자 꾸러기는 시일이

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자들이 조금씩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후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02)762-404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불교통신대학 | 불교통신대학원 |
|------|-------------------------------------|----------------------------------|
| 모집기간 | 수시 | 수시 |
| 수업연한 | 2년(4학기/각 6개월) | 경.율.논.선.밀교 각1년 |
| 수업방법 |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
| 전원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줄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 학 과 | 수업방법 | 교육기간 | 자 격 |
|-----|------|------|--|
| 사미과 | 주 2일 | 6개월 |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연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
| 사집과 | 주 1일 | 6개월 |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
| 사교과 | 주 1일 | 6개월 |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
| 대교과 | 주 1일 | 6개월 |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 원서교부 : 2005년 8월 1일부터 □ 입학일 : 9월 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2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오점바라, 도랑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교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